

교섭 해 넘긴 현대차그룹사 노동자 1만 명 뭉쳤다

현대제철·케피코지회, 11일 파업 후 현대차 본사 앞 결의대회 ... “양재동 노동통제 거부”

사측 교섭 해대로 2024년 단체 교섭을 마무리 못 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다.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노동통제 분쇄! 성실 교섭 촉구!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제철 원청·하청업체·자회사, 현대케피코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이 이날 파업 후 참석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철강업종분과 위원장)은 일명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만 부위원장은 “현대제철 사측 탓에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겨우 교섭을 시작했다. 결국 해를 넘겼다”라며 “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때도 교섭이 열린 후에도 양재동 본사 핑계였다. 이 같은 교섭 해태가 몇 년째 반복해 벌어진다”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노동자 요구 범위와 수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노동통제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꾸준히 비판해 왔다. 계열사 교섭 해태는 물론이고 개별 사업장을 고립시키고 노동자들 간 갈등을 만드는 것이 현대차그룹 노동통제전략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현대차그룹 노동통제 전략,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없애야”

박상만 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노동 통제를 거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2024년 임단협 투쟁을 이겨야 다음도

있다. 힘차게 투쟁해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없애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대원 인천지부장도 “현대제철 사측은 경기가 좋을 때도,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양재동 뜻에 따라 움직일 따름”이라며 현대차그룹 노무 정책을 꼬집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케피코지회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현대케피코는 현대차그룹 소속 자동차 부품사 중 유일하게 작년 단체교섭을 끝내지 못했다.

박명규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

회장은 “사측이 양재동 눈치를 보며 아직도 안을 내지 않았다”라며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들을 줄 세우며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한다. 양재동 가이드 라인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지 못한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악순환 고리를 끊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희승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 하이스코지회장은 “교섭이 해를 넘겼는데도 사측은 여전히 불성실 교섭을 자행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막으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와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를 저질렀다”라며 “노동자들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더 큰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공동파업 의미를 강조했다. 신동원 현대제철울산지회장은 “금속노조 11개 지회가 노동자는 하나라는 신념으로 뭉쳤다”라며 “성실 교섭과 비정규직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함께 외치면서 노동자 투쟁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상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다.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59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금속노조 규약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5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 아래 -

- 일시 : 2025년 2월 20일(목) 13시
- 장소 :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 안건
 - 안건1. 13기 1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승인 건
 - 안건2. 13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5년 투쟁방침 승인 건
 - 안건3. 13기 2년차 사업예산(안) 승인 건
 - 안건4.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 안건5. 특수목적기금 사용 승인 건
 - 안건6. 민주노총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기준(안) 승인 건
 - 안건7. 결의문 채택 건

2025년 1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정일

